

#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Design with Emphasis on Transparency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
| II. 투명성의 개념과 표현 특성 | V. 결론                        |
| III. 디자인에 있어서의 투명성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modern fashion design us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ransparency, and to help create future vision and feature. As part of the methodology for this study, I examine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its characteristics and how it was expressed through art, architecture and other designs using literature research. Furthermore, I performed justifiable analysis on modern fashion design which used transparency from the 1990s till present. The following concepts were deciphered from information: Firstly, the concept of purity was highlighted. The emphasis here was to enhance the body's natural beauty with simple silhouettes that do not restrict its curves, using light materials such as clear vinyl, semi-clear materials or thin chiffon. Secondly, to express sensuality by exposing the body's curves with tight wrapping using clear materials, or with indirect and symbolic see-through techniques using contrasting clear, semi-clear and opaque materials. Thirdly, to express futurism through cyber and electronic images using high tech or shiny materials such as metal or holograms. Mechanical movements or effects of light are also used. Fourthly, to express playful characteristic by promoting surprises and disharmony that contradict with traditional techniques. This is carried out by intentionally exaggerating certain portions of clothes through disorder elements or confusion, and unsymmetrical shapes which destruct the human body's normal form.

**주제어(Key Words)** : 투명성(Transparency), 순수성(Purity), 관능성(Sensualism), 미래성(Futurism), 유희성(Playfulness)

## I. 서론

현대예술 전반의 흐름이 과거 전통적인 방법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전개되고 있고, 패션 역시 접근방식과 개념이 다양해지며 표현재료의 다변화와 함께 장르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현대예술과 과학문명의 눈부신 변화는 패션을 비롯한 여타 조형예술 분야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시각적 개념을 수정, 보완하게 하여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미술 월간지 'Art News'의 분석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개최된 '아트 스펙트럼'의 전시 작품들을 통해 분석된 현대미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재료의 혁명이라고 하였듯이(조선일보, 2001) 예술과 디자인의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서 기존의 시대를 반영하는 투명한 디자인을 들 수 있다. 사물의 투명한 성질을 예술이나 디자인에 응용한 역사는 길다. 하지만 오늘날 건축이나 가전제품, 의복에 까지 투명성이 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과학문명의 혁신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성과 견고함을 지닌 새로운 투명재료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확장된 재료영역의 가능성은 새로운 양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여러 장르가 모호하게 혼합되는 복합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디자인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표현된 것으로 현대디자인의 트렌드인 즐거움과 유희 등을 표현하는 감성트렌드와 잘 부합된다고도 할 수 있다.

투명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건축과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이루어졌고(김미자, 2005; 이호영, 2004; 김선영, 2005; 이효창, 2005; 윤준성, 2006), 패션분야에 있어서는 건축과 복식을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기타 패션미학이나 디자인 연구에 있어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정연자, 1999; 김지현, 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투명성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내재된 미적특성을 파악하고 패션디자인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형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투명성에 대한 개념과 특성, 미술과 건축, 기타 디자인 분야에 표현된 투명성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투명성이 표현된 현대 패션디자인은 투명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Collections, GAP, Fashion News, Vogue 등 국내외 패션잡지 및 컬렉션을 통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 II. 투명성의 개념과 표현 특성

투명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trans(across) + parent(see)로 나뉘며 보인다는 뜻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투명이라는 성질 혹은 상태로 명백함을 의미하며 빛과 사물의 관통함을 말하는데, 손쉽게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이나 명백한 사물을 찾는 인간 특유의 욕구를 표현하는 물질적 상태이며 교활, 핑계 혹은 위선의 결여라는 성격상의 특질을 나타낸다(Colin, 1997, pp. 85-86). 또한 투명성은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지게 되는 실제적 속성, 빛을 통과시키는 재료의 특성 특히 배후에 있는 물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물질적 특성,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특성, 그리고 모호한 것을 의미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는 개방적인, 숨김없는 분명한, 손쉽게 알 수 있는, 분명한, 결백한 등의 의미를 지닌다.

로우는(C. Rowe)은 투명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였는데 첫째, 재료의 물성을 이용한 물리적 투명성으로서 물리적 존재를 동시에 지각시키는 문자 그대로의 투명성인 유리에 의한 가시적 투명성으로 이것은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짓는 벽에 대한 개념이다. 둘째, 물리적 성질과는 다른 시각적 투명성인 현상적 투명성으로 재료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존하지 않는 포괄적인 감성으로서 전달되는 심리적인 효과로서 물체의 다중성을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형태구조 및 공간이 주는 이미지로서의 투명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이호영, 2004).

케페스(G. Kepes)는 예술작품에서 발견되는 투명성에 대해 "도형에는 투명성이 부여되며 도형은 서로 시각상의 파괴 없이 상호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투명성은 단순한 시각상의 특성 이상의 것, 보다 광범위한 공간적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 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투명한 도형의 위치는 우리가 각각의 모습을 가까운 것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혜형, 2005)."라고 하여 투명성이 완전히 명백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 모호한 것을 의미함을 나타내고 있다.

투명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성질이 투명하거나 그 효과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료가 있더라도 빛을 통해 비물성화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빛이 공간이나 재료에 비춰져 그 효과를 발하고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투명성은 표현된다. 형태, 공간 구조에서의 투명성을 살펴보기 위해 물질적 상태를 가지고 보면 투명한 상태, 반투명하여 내부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모호한 상태, 막힌 불투명 상태 그리고 투명한 것과 불투명한 것이 대비된 상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재료의 상태는 각각 은유적 의미를 갖게 되는데 투명한 상태는 완전히 드러나 보이는 특성으로 명백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고 불투명의 상대적 의미로서 뒤의 것이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의미하여 솔직함과 순수성, 명백함, 개방성을 표현한다(이연희, 김영인, 2004). 반투명한 상태는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중간적인 상태로 경계의 모호한 성격을 가지며 환영의 효과와 상상력을 유발시킨다. 또 투명의 명확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투명성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하게 된다. 불투명은 공간직각이 불가능한 불투명한 상태로 단절감을 나타내지만 표면에 광택을 부가하여 반사성을 지니게 되면 재질이 매끈해지고 주변의 것을 반사하는 거울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투명한 표피적 효과를 지니며 유희적 효과를 전달하는데 이와 같이 재료의 변형을 주어 투명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경우를 착오적 투명성, 조작적 투명성이라고 한다(이호영, 2004). 투명함과 불투명함의 대비는 투명과 불투명의 시각적 대비를 통해 투명성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비와 소멸, 여백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은유적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고 강조의 효과와 함께 재미있는 형태를 나타내 유희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은 물질을 투과시키고 반사시킴으로서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창출한다. 본질적인 물리적 특성과 이에 의한 투명효과는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가능성을 제공해왔으며 현대의 다양한 디자인분야에서 투명성을 이용한 표현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 등에 의하여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Ⅲ. 디자인에 있어서의 투명성

#### 1) 건축과 미술

투명성은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디자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현대건축물의 디자인적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데, 유리, 플라스틱, 크리스털, 아크릴 등 다양한 투명 재료의 사용과 함께 건축의 물질적 요소들을 비물질적으로 형상화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건축에서 투명성은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내외부가 동시에 보이고 공간간의 관계성이 놓아지며 깊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19세기 건축에서는 유리생산방식과 건축구조의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에 유리창호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새 시대의 상징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김지현, 2005).

투명유리를 통한 주변 환경의 투과 효과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증축에서 잘 표현되었다. 페이(Pei)가 디자인 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중앙의 피라미드는 투명한 유리소재를

사용하여 주변의 17세기 건물을 차단하지 않고 시선을 투과시켜 기존의 역사적 건물과 단절감을 극복하고 있으며 그것들과 물리적, 시각적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건축가는 투명한 물성의 표현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를 절제하고 그러한 절제를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그 공간에서 공간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다양함을 느끼게 한다(김미자, 2005).

또한 건축에서의 투명성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을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는 동시성을 의미한다. 투명한 형태의 위치는 각각의 형태를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멀리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애매모호한 이중성을 지니게 되며, 물리적 경량감에서 비롯되는 가벼움의 특성은 비 물질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곧 찰나의 표현, 영원성의 표현, 공간 확장의 요구, 구심성의 해체를 의미하게 된다(이호영, 2004).

최근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독특한 투명외관의 디자인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청담동 페라리 자동차 전시장은 5층 건물 전체가 투명유리로 둘러싸여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밤이면 눈부신 조명으로 주변의 풍경을 압도하고 있으며, 에르메스 도산파크 역시 황금빛 유리로 감싼 건물 외관으로 독특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역시 건물외관의 전체가 마름모꼴의 유리로 구성된 아오야마의 프라다 빌딩, 형태와 크기가 다른 유리창을 아로새긴 듯한 독특한 설계로 치즈빌딩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도쿄 긴자의 미키모토 빌딩은 새로운 명소로 부상했다. 외국에서도 특정지역에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경쟁적으로 신축되면서 하나의 관광코스 자리 잡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투명성을 이용해 아름답고 인상적인 외관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건물 마케팅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조선일보, 2007). 이와 같이 투명성은 현대건축에서 중요한 조형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간의 풍부함을 느끼게 하는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에 나타난 투명성은 큐비즘에 나타난 작품을 통해 논의 될 수 있다. 큐비스트들의 기하학적 분석과 해체를 통한 투명성, 시간성, 동시성 등의 표현은 회화뿐만 아니라 문화 양식 전반에 걸쳐 새로운 미학을 정립시켰다. 큐비즘은 조형방법으로 원근법을 부정하고 동시표현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는 시각의 연속적 이동, 시점의 복수화로 시간을 뜻하는 것이며 공간을 시간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하나의 평면 위에 시간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김지현, 2005). 로우는 큐비즘의 특징을 정면성, 공간의 깊이 축소, 동시성, 광원에 의한 한정 사물의 돌출 등으로 분석하고, 큐비스트들이 오브제를 분해하고 또한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들을 통해 관찰자들은 그들의 회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롤로이드와 같은 물성과 반투명한 물질으로 구별한다

고 하였다(김광현, 1986). 이후 1960년대에 들어 사회적 다원화와 현대기술의 빠른 진보는 투명한 재료의 사용과 해석을 과거의 상징적이고 신비적인 차원에서 재료가 가진 다중적인 물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고, 현대미술에 표현된 투명성은 단순성으로 나타난 근대의 대명사가 되어 왔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자 하는 절제된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점차 예술전반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제품디자인

모홀리 나기(Moholy Nagy)가 그의 저서 <Vision in motion>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금세기가 되면서 우리는 건축물에서부터 생활상의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표현해왔다. 재료의 개발상에 특이 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불투명 재료에 의한 투명성의 표현방법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풍부하게 투명에 관한 표현이 나타나서 다양하게 사용된 세기는 과거에는 없었다(김미자, 2005). 이는 현대라는 시대가 겹겹이 싸여 있는 것보다는 속 내용물이 내보이는 개방적인 시대이며 경쾌하고 깨끗한 감성에 보다 큰 매력을 느끼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감수성 시대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제품디자인에 나타난 투명성은 내부를 훤히 보여주는 투명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호기심도 불러일으키는 판매 전략에서 나타나는데, 투명제품디자인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은 1990년 애플사의 컴퓨터 아이맥에서 시작되었다. 아이맥 시리즈는 그 속의 구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전자제품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안 구조의 생김새에 까지도 관심을 둔 신세대들의 관심을 끌었고, 2007년 애플코리아가 출시한 데스크톱 PC의 경우 겉 표면에 알루미늄과 유리소재를 사용해 디자인에 있어 차별화를 두었다(조선일보, 2007). 전자 제품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속을 뚫고 들어가 깊은 구조에까지도 관심을 갖는 새로운 신세대들의 주의력의 강화가 소위 제품의 누드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김민수, 2002, p. 190), 이런 투명디자인의 제품들은 컴퓨터는 물론 가습기, 전자레인지, 전화기 등에서 나타났고 가전제품에서 불기 시작한 투명성 바람은 핸드프리, 청소기, 샌들, 핸드백, 가방, 신발 등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키지 디자인에 있어서도 투명성의 활용은 단순한 투명소재의 이용효과를 강조하거나 새로운 재질의 개발과 더불어 물리적 재료로서의 개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작용하여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데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패키지에 있어서 투명성의 효과는 무엇보다 내용물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본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내용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

봄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고 투명한 재질과 내용물 그리고 투명한 재질을 통해서 보이는 배경이 모두 겹쳐서 하나로 결합하면서 시각적 범위를 확장시키는 통합적인 표현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안과 밖의 느낌과 재질 자체의 특징, 배경과 색채 등이 다르게 겹쳐져 나타나는 조형적 특징들로 패키지 디자인의 효과를 더해주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눈으로 제품을 확인 한 후에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식품업계에서 투명패키지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하겠다(김미자, 2005).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투명성은 특정한 분야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의, 식, 주를 통합하는 각각의 디자인 영역에 적용된 표현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현대에 와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3) 복식

투명한 의복은 고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이 입었던 로브는 반투명의 사각형 천을 허리에서 매듭지어 입어 마치 케이프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고, 여성들의 복식도 얇은 베일을 두르는 등 일반적으로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투명하게 비치지는 의복을 착용하여 인체를 감추기 보다는 드러내는 의복이 나타났다.

그리스, 로마의 복식은 남녀 구별 없이 자연적인 인체의미를 살리기 위해 얇은 천으로 인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이퍼리 형태의 복식을 착용하였는데, 고대에서 투명한 의복은 잔잔한 주름사이로 비치지는 인체와 의상과의 조화로 인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체미와 함께 곧 지각적인 투명성이 표현되었다. 중세에는 인체의 노출이나 투명한 의복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중세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인체를 드러내는 의복을 착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근대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의미를 두는 시기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사회적인 삶이 반영된 모든 정신은 물론 관능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여성의 미를 과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성의 나체미를 과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행하였다(Eduard, 1990, p. 32).

엠포이어 스타일 시대는 인체의 선이 투명하게 보이는 의복이 유행한 시기로 파리 부인들은 코르셋은 물론 속옷도 입지 않은 채 맨살 위에 슈미즈를 입었다(백영자, 유효순, 1998, p. 253). 상체와 소매에 얇은 면으로 안을 받치고 스커트 부분은 안감을 대지 않았으며 투명한 머슬린을 사용하여 인체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다. 또 몸에 더욱 밀착된 효과를 얻기 위해 머슬린을 물에 적서 입어 맨살이 완전히 비치 보이게 하였으며, 겨울철에도 얇은 옷감의 슈미즈를 입어 폐렴환자와 사망자가 생길 정도였다. 이 시대 여성들이 추구했던 투명한 의복은 여성미에 대한 표출 욕구이며 관능적인 욕

구를 표현한 것으로 극도로 얇고 투명한 소재의 의복을 통해 가슴, 다리, 팔 등을 부분적으로 노출하는 가시적 투명성을 표현하였다.

20세기 전반기의 복식은 합리적이며 활동적인 복식으로 급속히 변했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얇고 비치는 소재들은 비즈, 자수 등과 함께 이브닝드레스나 야회복으로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인체를 대담하게 노출하는 투명한 의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7년에는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에 의해 시스루 드레스가, 1968년에는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시스루 블라우스가 발표되어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투명한 복식은 복고풍의 영향과 여성 육체에 대한 재발견으로서 신 구성주의, 바디컨서스 라인과 함께(정연자, 1999) 성적인 육체를 가리면서 동시에 드러내 보이는 방법으로 보는 이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게 하였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투명성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패션소재부문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하였고, 투명소재가 갖는 섬세하고 아름답게 빛을 투영하는 특성은 패션디자인 영역에서 신비롭고 입체적인 효과를 표현하며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투명패션은 고대부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표현되어 왔고 현대패션에 있어서도 독창적이고 새로운 표현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 IV.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인의 미적 특성

패션에서의 투명성은 인체노출 현상으로 인해 순수성, 명백함과 더불어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 패션소재에 따른 그 표현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투명성은 비닐, 툴, 오간자 등 얇고 투명한 소재에 의해 문양, 장식, 색채 등 겹침이 없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복식에서는 인체의 노출 현상으로 인해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관능적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게 된다. 또 투명 비닐을 이용해 전체가 투명한 의상은 다른 의상 위에 레이어드하여 안에 입은 의상이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함으로써 개방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반투명 상태는 메탈릭 한 신소재, 반투명의 비닐, 레이스, 시폰 등의 소재가 문양, 색채, 장식, 겹침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나며 내부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모호한 상태로 인체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아 환영의 효과와 상상력을 유발시키게 된다. 불투명 상태는 투명한 소재의 중첩에 의해 시각적으로는 불투명하지만 지각적인 투명성을 전달하는 방법, 반투명 소재를 여러 겹 겹쳐 입거나, 불투명한 의복 위에 투명한 의복을 입는 방법, 불투명한 소재에 광택을 부가하여 그 반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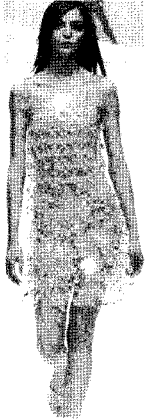
으로 투명하게 보이는 방법 등 재료에 변형을 주어 그 효과가 나타나며 인체가 비춰지지 않는 상태로 소재에 따라 모호하면서도 복합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투명과 불투명의 대비는 얇고 투명한 소재와 두껍고 불투명한 소재에 의해 표현되는 시각적 대비를 통해 강한 대비현상과 강조의 효과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눈부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형태를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재료의 개발로 그 종류는 다양하며, 투명한 재질을 통하여 내, 외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재의 투명성과 결합된 효과로서 신기한 느낌과 청결하고 경쾌한 재질감, 의외성을 보여주기도 한다(Naomi, 1995, p. 63). 이러한 표현방법으로 나타나는 투명패션의 미적특성을 순수성, 관능성, 미래성, 유희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순수성

순수성은 순결하고 순진하며 순정의 의미를 가지며, 우아하고 정숙한 여성미와 관련된다(김복희, 남윤숙, 2006). 현대패션에서 순수성의 추구는 형태의 과장을 없애고 직물평면에서의 장식성을 배제시켜 나타난 자연의 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따른 의복의 단순화 경향과 조형요소로서 본질의 인식이 결합된 표현 형태로 의복의 과장을 없애고 장식성을 배제시키며 인공적인 실루엣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체 선을 표현함으로써 순수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투명성 패션의 순수성은 <그림 1>과 같이 투명한 재료에 빛을 통과하여 동시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투명한 의복의 저변에는 에로티시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림 2>와 같이 과장과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의 깨끗한 흰색을 이용하여 순수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단순한 형태의 의복 안에 직선을 이용한 면 분할로 의복을 표현하고 반투명 소재의 겹침으로 인한 시각적인 색채의 배분효과를 이루어 여성의 곡선미와 단순한 형태미를 순수하게 표현하게 된다.

특히 투명패션에서의 순수성은 인체의 자연미를 부각시키게 되는데 심이나 안감을 넣지 않고 투명한 소재 하나로 복식을 부드럽게 조형하고 여성의 신체를 살리도록 신체에 맞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형태에 있어 <그림 4>와 같이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마치 인체 자체의 순수성을 추구하거나 여성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리는 개방형의 단순한 복식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5> 역시 음부만을 스커트 자락으로 가린 채 극도로 얇은 투명 소재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상반신은 여성의 인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나, 노출된 인체는 관능적인 이미지보다는 순수한 자연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 1〉 Paco Rabanne, 2002F/W (L'Officiel, 2002. 5, p.29)



〈그림 2〉 Calvin Klein, 1998S/S (Icons of fashion, p.155)



〈그림 3〉 Eri Matsui, 1999S/S (Collections III, p. 169)



〈그림 4〉 Alexander McQueen, 1997S/S (Collections II, p. 329 )



〈그림 5〉 Pascal Humbert, 2001S/S (Gap, vol. 34, p. 74)



〈그림 6〉 Versace, 2002S/S (Fashion news, vol.76, p. 65)



〈그림 7〉 Salvatore Ferragamo, 2002S/S(L'Officiel, 2001. 12, p. 57)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나는 투명성 패션의 순수성은 투명비닐이나 흰색 반투명 소재, 얇은 시폰과 같은 소재들을 이용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다. 투명소재로 신체의 자연미가 중요시 부각되는 이유는 인간의 정신이 자연의 모든 것을 형체로 느끼고 생각하며 보고 있듯이 자연과 인간의 정신은 서로 주고받는 작용 하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도의 첨단 산업사회의 지나친 물질 우선주의와 획일화된 문명사회 속에서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인간적인 가치관에 가치를 두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한 형상이라 하겠다. 또한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를 인식하고 인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순수성과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편안함의 추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고자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 2. 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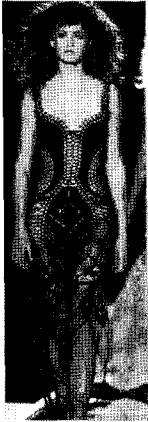
현대 패션은 자기표현에 있어서 더 이상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투명소재를 통한 여성인체의 관능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투명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따라 표현되는 신체노출의 방법, 노출하는 신체부위 등은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게 되고 특히 다양한 물성을 가진 투명소재를 통해 성적 부위의 노출 및 은폐로 여성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성향을 나타냄과 동시에 개인의 감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관능성은 성적, 육감적, 성욕적, 자극적, 퇴폐적, 쾌락적,

감각적인 것과 유사한 개념을 지니며(김복희, 남윤숙, 2006), 성적 매력을 발휘하여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현대에 이르러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정하면서 여성 인체의 해방을 주장하는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려는 사고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투명패션에 있어 관능성은 색시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의복의 형태, 색채, 소재 등을 통해 나타나는데, 특히 〈그림 6〉과 같이 인체의 움직임과 빛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가진 비치는 소재와 장식들은 가슴과 허리, 힙 등 여성의 우아한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나 보이게 하며 복식을 환상적으로 느껴지게 하며 아름다운 인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여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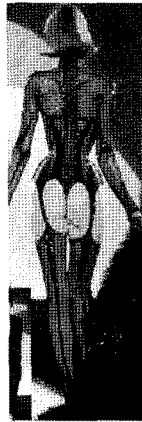
신체부위의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명한 소재를 통한 노출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체 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단계로서 관능미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투시의 기법은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투명패션의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시의 효과는 피부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노출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그림 7〉과 같이 블랙의 시폰, 레이스 등 얇고 가벼운 투명한 소재를 통해서 피부나 신체의 각 부분이 비춰지거나 〈그림 8〉과 같이 망사나 그물소재 등을 이용하여 일부분을 살짝 가려 투시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에로틱함을 더 느낄 수 있어 관능미를 유발하거나 표현하는데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9〉의 투명과 불투명 소재의 대비를 통해 가시화된 가슴은 모체의 기능과 순결성을 나타낸다기보다 관능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붉은 자주 빛으로 페인팅 한 유두는 소재의 대비를



〈그림 8〉  
Versace,  
2002S/S  
(Fashion  
news, vol.76,  
p. 64)



〈그림 9〉 Yves  
Saint Laurent,  
2003S/S  
(Vogue, 2002,  
12, p. 3)



〈그림10〉Thierry  
Mugler,1998F/W(  
Vogue, 1998,  
9,p. 41)



〈그림 11〉Jean  
Paul Gaultier,  
2002S/S(L'Offi  
ciel,2002. 4,  
p. 89)



〈그림 12〉Thierry  
Mugler,  
1995F/W  
(Collections II,  
p. 18)



〈그림 13〉 Givenchy,  
1999F/W (패션디자인발  
상, p.133)

통한 암시적노출로 인해 노출되었을 때 보다 더욱 큰 성적자극을 전달하며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또 밀착형은 관능미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특징 중 하나로 신체의 곡선에 복식을 밀착시켜 인체의 유연한 곡선을 반 직 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밀착된 부위의 형태를 확실하게 드러내 강조해 주는데, 이때 신체부위를 감싸는 투명소재는 관능미를 표현하게 된다. 또 관능미는 투명과 불투명 재료를 같이 사용하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림 10〉과 같이 코르셋, 브래지어, 가터벨트, 페티코트 등 속옷의 소재, 장식기법, 이미지 등의 요소를 이용한 속옷의 겉옷화로 기존의 성의 인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여성적인 성적 상징을 과시함으로써 여성의 매력을 강조하는 관능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투명 소재에 의해 직접 노출을 할 경우에도 가슴과 음부 부분에 장식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켜 성적 자극을 유도하게 하는데, 〈그림 11〉은 마치 인체 전신에 문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 드레스로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투명소재에 의한 노출 부위가 특정 부위 또는 전신을 강조하는 과감한 표현은 투명패션이 환유적인 시각화를 통해 성적 자극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임을 보여주게 한다. 또한 몸에 밀착되는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 또한 한 몫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시폰 이외에도 새로운 투명소재의 개발로 대담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투명패션에 있어 투명 소재에 의한 투시의 효과는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소재라는 일차적인 관문을 넘어 현대적인 미 추구 이상의 특별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게 되며 보이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미 추구개념이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관능적 이미지를 강하게 나타내다 하겠다.

### 3. 미래성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일상생활에까지 변화를 유도하며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과학적 발달로 새로이 수립된 패러다임에 의해 사회와 문화전반의 인식체계도 이전의 것과는 다르게 되고 디자인의 인식체계도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이호영, 2004).

패션소재 역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실험 정신의 과학기술로 의상을 제작,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패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이며 새로운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첨단과학이 반영된 투명 소재들을 패션에 시도하는 것은 현 시대적 상황과 현대인의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투명 소재들은 인간의 내면적인 것까지 표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복식조형을 통해 정신적 세계까지 가능할 수 있어 소재의 확대 가능성 뿐 아니라 복식 조형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신체 위에서 조형화 되는 패션에도 영향을 주어 기술과 인간의 신체가 결합된 고도의 테크놀로지 사회에서의 미래형의 인간 이미지를 창조해 낸다. 단순히 복식이 신체를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 기술과 결합되어 고도의 능력을 지닌 미래 테크놀로지 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간형으로서 사이보그 이미지를 제시하기도 한다(권기영, 조필교, 2000). 〈그림 12〉는 알루미늄과 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사이보그 슈트로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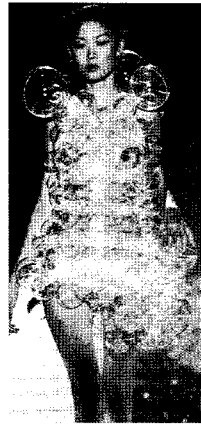
<그림 14>  
Alexander  
McQueen,  
1999F/W (Icons  
of fashion, p.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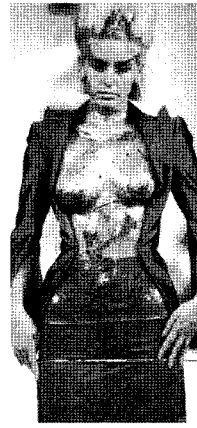
<그림 15>Issey  
Miyake,  
1996S/S(Icons  
of fashion, P.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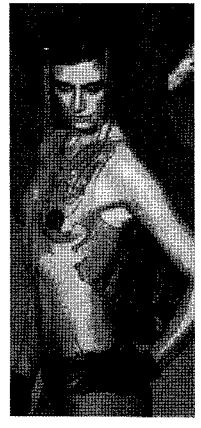
<그림 16>  
Fendi,2007S  
/S (Vogue,  
2006. 12, p.  
122)



<그림 17> Hussein  
Chalayan,  
2007S/S (Gap,  
vol.73, p. 65)



<그림 18>  
Alexander  
McQueen,  
1996S/S (Fashion  
at the edge,  
p.239)



<그림 19>  
J. Maskrey,  
2003F/W (Vogue,  
2003. 5. p. 87)

래의 초인간을 표현한 것이며, 또한 사이보그를 가동시키는 기계의 부품장치를 장착한 것과 같은 재킷을 표현하여 패션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현대를 나타내는 이상적인 정신의 표현인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미학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또 <그림 13>과 같이 반도체 칩과 복잡한 회로, 투명한 비닐 전선으로 구성되어 볼 커진 전구로 장식되어 있는 의상이나, <그림 14>와 같이 인간 신체 내부의 혈관과 신경조직 대신에 투명한 비닐 소재 위에 반도체 회로와 여러 전선가닥으로 구성되어 프린트 된 의상으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하여 인간이 기계부품으로 변환된 것과 같은 시각적 착시를 일으켰다. 이것은 과학문명의 한 부분을 투명성을 나타내는 패션으로 승화시켜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인간 신체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원을 차단했을 때 일순간 사라져 버리는 가상적인 존재로서 디지털 형 인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직물을 소재로 몸에 맞게 재단되어져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른 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의상을 단순히 인체에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그 속에서 인체가 둘러싸여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유승희, 금기숙, 1999). 또 투명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선택은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적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용적이고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있어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그림 15>는 홀로 그래픽 의상으로 섬유공학의 하이 테크놀로지 덕분에 실용화에 성공한 것으로 투명함과 은빛의 금속성 이미지로 미래적인 패션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6> 역시 홀로

그램처럼 반짝이는 하이테크 소재로 구성된 원피스로 투명 소재를 여러 겹 겹쳐 불투명하지만 지각적인 투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7>은 투명한 플렉스 글라스 소재의 방울들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구성되어 공기보다 가벼운 경량감을 느끼게 하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투명패션에서 이러한 미래지향적 이미지는 신소재나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으로 우주와 공상과학을 표현한 우주 룩과 여기에 반전통적 정신과 과학주의적 실험성, 기계주의의 비인간성을 내포하는 아방가르드 룩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이테크 소재나 메탈, 홀로그램 등 빛나는 색채의 사용, 복제성을 나타내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또 정보화 시대의 하이 테크놀로지를 사이버의 전자 이미지와 기계의 동적인 현상 및 빛의 효과로 투명패션에 적용시켜 인간의 이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주미영, 김영인, 2006).

이와 같이 투명패션에서 미래성은 형태면에서 기하학적 구성의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 비대칭적이며 역동적인 형태의 사선으로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등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색채 면에서는 명료하고 경쾌한 색채의 사용과 강한 색상대비, 금속적인 이미지를 주는 색의 활용으로 역동성을 나타내며 투명소재에 의한 기계미 추구, 첨단 과학소재 등 기존의 패션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조형성과 요소들을 통해 낙관적인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였다.

#### 4. 유희성

사회가 발달할수록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수반되는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현대인들에게 즐거움과 재





〈그림 20〉 거울조각드레스 (패션디자이너, p.136)



〈그림 21〉 Victor&Rolf, 2007S/S (Gap, vol.73, p.22)



〈그림 22〉 John Galliano, 2001S/S(L'Officiel, 2001. 4, p. 48)

미를 주는 유희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어지며 이러한 경향은 정서적 공감력과 정신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호이징아(Huizenga)는 비단 예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문화가 귀인 되는 원시적인 유희 충동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긴장과 쾌락과 재미를 함께 한 유희를 우리에게 주었으며 이 재미라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가 유희의 본질을 규정하게 되며, 유희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스러운 것 바로 자유로 실제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스러운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하지수, 1994).

이러한 인간 내면의 가치관 변화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디자인 산업에서도 재미와 즐거움 등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유희적인 표현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의 발달과 대중문화의 활성화로 보다 다양화되고 강한 개성을 나타내는 현대소비자들은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미를 추구하며, 많은 디자이너들 역시 전통적인 미의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의복에 유희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유희성은 새로운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의 원천이나 표현방식으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의 표출이 유희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수단으로 활용되어지기도 한다(안세라, 강병석, 2006).

투명패션에서의 유희성은 상식을 벗어나 의도적으로 의복을 왜곡 과장하거나 신체 일부의 비정상적 과장 그리고 의복구성을 무시하여 신체를 기괴하게 형상화한 것, 추한 신체, 인체의 정형성을 파괴하는 비정형성과 비대칭성, 의도적

으로 파괴되거나 미완성된 의복, 기존의 착장방식을 부정하는 형태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8〉은 지렁이와 같은 벌레를 마치 샌드위치 하듯 투명한 플라스틱 뷔스티에에 안에 넣어 모델의 몸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효과를 나타내며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서 유희성을 표현하였으며, 〈그림 19〉는 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볼레로와 같은 형태의 의상과 연결된 가방으로 의상과 액세서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진한 색상으로 칠한 유두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투영되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투명소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웃음만을 제공하는 디자이너나 기묘한 스타일의 파격적이고 거리낌 없는 의상과 분장으로 웃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충격적이고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러한 표현은 의상에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사회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20〉은 투명소재의 사각 형태와 크리놀린 형태의 틀에 수많은 거울 조각을 붙여 주변의 것의 반사시킴으로서 가시적이고 시각적인 투명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처럼 투명 패션에서 표현되는 투명소재와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은 부조화와 의의성을 유발시켜 유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난 위치전환으로 놀라움과 웃음을 전달하게 되며, 왜곡된 소재의 의도적인 변형된 이미지는 의외의 사물이나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희극적인 유희로서 유희적으로 표현되며 내부로부터의 해체작업을 통해 충격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그림 21〉은 상반신은 흡사 누드와 같이 투명한 소재와 반짝이는 크리스털로 장식되고 불투명한 팬츠부분에는 별 모양의 모티브로 부분적인 노출을 표현하였으며 자유로운 지그재그 선으로 인체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으며, 〈그림 22〉 역시 투명과 불투명 비닐 소재의 대비를 통해 투명성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팬츠 중앙에 둥근 타원 형태로 커팅된 투명부분은 색상의 명확한 차이와 함께 대비와 소멸, 여백의 효과를 나타내며 유희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본래의 형태를 벗어나는 과장이나 변형, 왜곡, 착시에 의한 디자인적 표현은 투명패션에 있어 흥미롭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방법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탈현실, 탈현상의 의지라도 보이며 그 자체가 유희인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 패션디자이너를 통해 그 안에 내재된 미적특성을 파악하고 패션디자이너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형식을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은 그 주체가 되는 인체로 인해 인

체노출 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재료의 물성에 따라 투명, 반투명, 불투명, 투명과 불투명의 대비로 나타난다. 투명성을 이용한 현대패션디자인의 미적특성은 연구결과 첫째, 순수성으로 투명비닐이나 흰색 반투명 소재, 얇은 시폰과 같은 소재들을 이용하여 인체를 구속하지 않고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인체의 자연미를 부각시키고 현대문명사회 속에서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치를 두고자 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였다. 둘째, 직접적인 노출이 아닌 투명 또는 반투명 소재, 투명과 불투명 소재의 대비를 통한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의 투시의 기법으로 관능성을 나타냈으며, 또 투명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에 복식을 밀착시키는 밀착형으로 인체의 유연한 곡선을 반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관능미를 표현하였다. 셋째, 첨단과학으로 개발된 하이테크 소재의 활용, 메탈이나 홀로그램 등 빛나는 색채의 사용, 투명소재에 의한 기계미 추구 등 사이버적인 전자 이미지와 기계의 동적인 현상 및 빛의 효과로 미래성을 나타냈다. 이는 인간의 이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기존의 패션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조형성과 요소들을 통해 낙관적인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였다. 넷째, 투명소재와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의복을 왜곡 과장하거나 신체 일부분의 비정상적 과장 그리고 의복구성을 무시하여 신체를 기괴하게 형상화한 것, 추한 신체, 인체의 정형성을 파괴하는 비정형성과 비대칭성, 기존의 착장방식을 부정하는 형태 등 부조화와 의외성을 유발시켜 유희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현대패션에 있어 소재와 새로운 관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형요소 중의 하나이다. 패션에 있어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명성을 이용한 디자인은 보고 싶어 하고 또 보이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미 추구 개념과 함께 시각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미 추구 이상의 효과와 현대 패션디자인에 다양함과 변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고혜형(2005). 플라스틱 필름의 투명성과 스티치에 의한 텍스처어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기영, 조필교(2000). 현대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681-706.  
 김광현(1986). Colin Rowe의 현상학적 투명성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 57-64.

김미자(2005). 패키지디자인의 조형요소로서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6(2), 251-259.  
 김민수(2002).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서울: 다우.  
 김복희, 남윤숙(2006). 영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에 나타난 팜프파탈 의상의 미적특성. **복식**, 56(9), 14-23.  
 김선영(2005). 미니멀 건축공간으로 본 투명성의 조형적 효과. **기초조형학연구**, 6(2), 85-95.  
 김지현(2005). 현대패션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영자, 유효순(1998). **서양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안세라, 강병석(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의 조형 연구. **기초조형학 연구**, 7(2), 359-369.  
 유승희, 금기숙(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금속에 관한 연구. **복식**, 45, 161-178.  
 윤준성(2006). 현대예술매체의 투명성에 관한 신화. **기초조형학연구**, 7(1), 355-363.  
 이연희, 김영인(2004). 투명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연구.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72-74.  
 이호영(2004). 의류전문매장의 투명성 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효창(2005). 오피스건축물의 로비공간에 나타난 투명성의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연자(1999).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의 이미지.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일보(2006. 2. 21). 현대미술 코드를 잡아라. A21.  
 조선일보(2007. 8. 31). 신제품 경쟁으로 새바람 부는 PC시장. D5.  
 주미영, 김영인(2006).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복식**, 56(6), 1-15.  
 하지수(1994).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 71-84.  
 Colin, R.(1997). **근대건축론집**. 윤재희(역). 서울: 세진사. (1986년 원저발간)  
 Eduard, F.(1990). **풍속의 역사Ⅱ**. 이기웅, 박종만(공역). 서울: 까치. (1909년 원저발간)  
 Naomi, A.(1995). **예술, 디자인의 입체구성**. 권오현(역). 서울: 조형사. (1992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8년 5월 6일  
 심사시작일 : 2008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7일